


 **가축질병 예방대책 모색 심포지엄**

+ 한국가축위생학회

한국가축위생학회(회장 이성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수의사회관에서 ‘국내 가축질병 동향 및 예방대책’이라는 주제로 2011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종현 검역검사본부 연구관이 ‘FMD 발생억제와 청정유지를 위한 대응방안’, 김재홍 서울대 교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조호성 전북대 교수가 ‘우결핵 발생현황 및 진단개선 방안’, 정년기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이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대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11년 6월 29일

 **수의사의 ‘소리없는 외침’**

■ **기자수첩**

‘삭발’, 그 말만으로도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예로부터 선인들은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고 해서 신체의 털이나 살갓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했다. 머리카락도 팔과 다리와 다름없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삭발은 곧 팔이나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삭발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실제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따른 심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삭발하는 사람치고 눈물을 흘리거나 굳은 결의의 표정을 짓지 않는 사람이 없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지난 21일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 등 수의사회 간부진 10여명이 머리카락을 잘랐다. ‘문화제’로 치러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 반대’ 집회에서 삭발의식을 가짐으로써 행사가 갑자기 경건해 지고, 숙연해 졌다.

폭발력이 컸다. 이를 본 집회 참가자들은 머리카락을 잘라야만 하는 현실에 이루 말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렇게 수의사들은 모처럼 결속했고,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그리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 반대’가 결코, 수의사를 위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

수의사회는 수의사처방제 실시, 수의사회 당연가입 추진, 가축공제제도 도입 등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안팎으로 단결과 협력, 포용 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이다. 회장단 삭발은 부가세 반대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수의사들에게 단합을 호소하는 행위였다. 이번 삭발이 수의사들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11년 6월 27일

 **검역검사본부, '혁신의 묘' 살린 옥동자 기대**

■ 기자수첩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가 지난 15일 첫 출항을 알리는 뱃고동을 울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이른바 3대 검역기관이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라는 한배를 타게 됐다. 직원 1천335명을 아우르는 거대조직이다. 돌이켜 보면, 통합과정은 험난한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이쪽저쪽에서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 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내부에서조차 "무슨 득이 있나"라며 반발했다. 수년 사이 몇번이나 통합설이 고개를 들었다가 사그러들기를 반복했다. 결국, FMD 사태를 겪으면서 통합이 속도를 냈고, '선진화 대책' 일환으로 이번에 검역검사본부가 탄생하게 됐다. 진통을 이겨낸 만큼, 국민이 검역검사본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수축산식품을 국민식탁에 올려주기를 바란다. FMD 등 각종 질병을 막아내는 '방패막' 을 그리기도 한다. 특히 연구, 동물보호 등 민간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을 수행해 농수축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질적인 사고와 문화가 걸림돌이다. 기존 3개 기관이 워낙 전문가 집단이었기 때문에 새 것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를 고집하다가는 결코 '혁신' 이라는 족적을 남길 수 없다. 사공이 많아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국민의 눈은 여전히 검역검사본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빼그덕거리기라도 한다면 "괜한 짓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 노를 저어나갈 때 진정 통합이 의미있어 진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11년 6월 22일



“서민경제 옥죄는 부당 과세 폐지를”

✦ 과천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문화제 열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 등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21일 정부 과천청사 운동장에서 열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문화제’에는 4천여명이 참석해 부가세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철회를 호소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반대” 목소리가 담긴 국회의원 92명과 일반시민 12만명 서명과 함께 국민청원서를 채택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문화행사, 결의대회 등을 마련해, 철회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행사를 주관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 연대’에서는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서민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기동물 처리비가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는 국민 뜻을 무시한 채 부자감세로 부족해 진 세원을 서민 주머니에서 채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 등 24명 의원이 발의한 ‘동물진료비 면세유지’ 법안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11년 6월 22일



‘결연한 의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절대 안된다.” 지난 21일 정부 과천청사 운동장에서 열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문화제’에는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4천여명이 운집해 “부가가치세 부과 철회”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김육경 대한수의사회 회장(가운데),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 회장(왼쪽), 강종일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오른쪽) 등 수의사회 간부들은 삭발을 감행,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철회될 때까지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11년 6월 22일

 **검역기관 ‘통합시대’ 개막**

+ 5부29과 거대조직 ‘검역검사본부’ 출범

중복 · 유사기능 통합...업무 효율성 높여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유기적 대응력 강화

동물, 식물, 수산물 등을 아우르는 ‘통합 검역기관’ 이 드디어 얼굴을 드러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이근성)는 지난 15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검역검사본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이른바 3개 검역기관이 한데 뭉쳐 새롭게 탄생한 통합 검역기관. 5부 29과, 6지역 검역검사소 30사무소 등을 거느린 거대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직원은 무려 1,335명에 이른다. 검역검사본부는 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창출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관의 중복 · 유사기능을 합치고, 핵심사업 위주로 조직을 개편했다. 특히 방역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구제역 진단과’와 ‘위기대응센터’를 신설했고, 서울 · 부산 · 용인 · 천안 · 전주 등 5개 지역에는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뒀다. 아울러,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 FMD 백신 수급관리 등 신규업무가 합류했다. 검역 · 방역 업무의 경우, 해외여행 축산인 소독, FMD진단, 역학조사, 공항만 탐지견 운영 등 인력풀이 한층 보강됐다. 또한 동 · 식물 및 수산물 질병연구 기능이 전문화됐고, 수출입되는 동 · 식물 및 수산물 검역검사와 위생안전관리가 일원화됐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을 통해 FMD 발생 등 비상상황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졌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다 안전한 식품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역검사본부 본부장은 공개모집 중이다. 오는 30일까지 지원해야 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 검증작업 등을 거쳐 오는 8월 초에는 초대 본부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11년 6월 15일

 **기자수첩 / FMD백신 국내생산 ‘양날의 칼’**

올초 방역당국은 FMD 백신 조달에 한바탕 난리를 겪었다. 사상 처음으로 전국 FMD 백신을 하려다 보니 당연히 백신이 모자랐다. 급박했다.



이리저리 수소문해 전세계에 흩어져 있던 FMD 백신을 모조리 한국행 비행기에 싣어담았다. 이웃 나라에서 FMD 백신을 빌려오기도 했다.

앞으로 얼마가 될 지 모르겠지만, 당장 2~3년간은 FMD 백신 사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안으로 FMD 백신 국내생산이 제시됐다. 항원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백신 완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미 절차에 들어갔고, 현재는 생산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중이다. FMD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지난번처럼 요란을 떨지 않아도 된다. 비축해 두고, 필요할 때 쓰면 된다.

특히 소용량 포장, 국내 분리주 등 맞춤형 백신생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외국으로 새나가는 돈도 완제품 수입보다는 아무래도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불안불안하다. 품질적인 면이다. 외국 항원공급 기업으로부터 기술전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품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입제품이 상한선이다. 수입완제품 품질을 두고서도 이런저런 불만이 터져나왔고, 백신업체들은 꽤 속앓이를 했다. 국산제품이라면, 클레임이 더 들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전업농 이상의 경우, 백신가격의 50%를 내야한다. 공짜 백신에도 말이 많았는데 '내돈 주고 산 백신' 이라면 오죽하겠는가. FMD 백신 국내생산은 매력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양날의 칼' 이다. 잘한다면, '효율성' 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괜한 짓 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감내해야만 한다. '최고 제품' 을 만들어야만, 백신생산 업체도, 농가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11년 6월 13일



국내 분리주 FMD 백신 개발 착수

인터벳트 · 메리알, 빠르면 내년부터 농가에 공급
백신효과 극대화 기대... "방어범위 한계" 지적도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 분리주를 이용한 FMD 백신이 축산농가에 공급될 전망이다. 인터벳트와 메리알 등 FMD 백신 생산업체들은 국내 분리주를 이용해 FMD 백신 개발에 들어갔다. 이들 업체는 우선 국내 분리주가 백신용으로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당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항원 개발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쯤 항원개발이 마무리되고, 내년 공급되는 FMD 백신에는 국내 분리주 항원이 담겨질 가능성이 높다. 한 관계자는 "지금 쓰이고 있

는 'O1 Manisa' 형 역시 외국에서 분리된 FMD 바이러스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 분리주라고 해서 백신항원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내 분리주를 이용한 백신 개발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간 많은 수의전문가들은 "국내 분리주가 백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국내 분리주를 이용한 FMD 백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를 두고, 다른 일각에서는 "보다 방어력이 광범위한 'O1 Manisa' 형이 유리하다"고 맞섰다. 결국, 'O1 Manisa' 형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 국내 분리주를 이용한 FMD 백신 개발이 이뤄지게 됐다. 방역당국과 백신업체간 공감대도 일정부분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11년 6월 9일



“수의사, 현안해결 위해 뭉쳐야”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이 다시한번 수의사의 결집과 화합을 강조했다. 김옥경 회장은 지난 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수의정책포럼 <사진>에서 '수의사 비전' 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수의업계에는 반려동물부과세 부과, 수의사처방제 도입, 대동물 동물병원 진입 등 현안이 쌓여 있다”며 1만5천여 수의사들의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수의사들이 전문가로 대우받는 패러다임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려면, 동물복지, 인수공통질병, 축산물안전 등 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수의사 처우개선을 소명으로 여기고, 고난의 길이 된다고 해도 피하지 않고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11년 6월 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즉각 철회하라”

+ 김옥경 수의사회장 등 수의단체 집행부 삭발 시위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해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려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 연대' 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 운동장에서 '동물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문화제' 를 갖고 부가세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국에서 상경한 수의사 및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문화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0년 12월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1년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동물진료비 부가세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92명과 일반시민 12만명의 서명과 함께 국민청원서를 채택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문화행사,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의대회에서는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을 비롯해 수의사회 지부장 등 수의업계 리더들의 삭발식이 진행돼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이날 김옥경 회장은 “동물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기동물이 늘어나 유기동물 처리비로 국민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인수공용전염병이 전파되어 국민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중요한 사안을 기획재정부는 관련 단체나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원만을 발굴하는데 혈안이 되어 단 4일만의 입법예고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밝히면서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이 ‘동물진료비 면세유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심의가 보류된바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 연대’는 이번 문화행사를 동물진료비 부가세 반대 운동을 위한 400만 동물가정과 1000만 국민의 뜻을 결집하는 시발점으로 삼고 앞으로도 부가세 철회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11년 6월 4일



“수의사 처우 개선 위해 헌신할 터”

+ 김옥경 수의사회장, 수의정책 포럼서 강조

신임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이 수의사의 권익신장과 수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피력했다. 지난 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수의정책포럼에서 김옥경 회장은 ‘수의사의 비전과 수의사회 업무 추진방향’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포럼회원들에게 지지와 동참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특히 “수의사가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대우 받는 페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의 가축방역 시스템 전면 재편과 전문인력 확대, 수의전문가를 통한 전문

가에 의한 방역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동물진료의 활성화를 통한 동물병원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공제제도의 도입, 대기업의 동물병원 진입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정책 폐지, 인체용의약품 구입 합리화, 축종별 선진임상기술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수의사가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힘 있는 수의사회 건설’을 위해 수의사 의무가입을 통한 회원확대, 임상·학계·업계·공직 등의 일자리 창출, 관련기관립淪鈞단체 등의 유대강화를 통한 수의사회 결집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수의사처방제 조기도입 및 정착, 자가진료의 축소·폐지, 2011 WSAVA, 2012 IPVS, 한수약품 활성화, 진료에 대한 법적 분쟁 대책 마련 등 당면 현안사항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당면한 과제들의 해결과 각 분야 수의사들의 처우개선을 회장으로서 소명으로 여기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고난의 길이 되더라도 피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일만 오천여 수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 지지를 부탁했다.

박정원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11년 6월 10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경기 안양시 소재 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입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유관기관·협회·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현판제막,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규용 장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은 국경검역·방역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 및 FTA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 등 점차 늘어나는 정책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출범의 시너지 효과를 살려 검역검사본부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희경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 / 2011년 6월 20일